

2022.11.18-
2023.1.21

아르코미술관 제1, 2 전시실
스페이스필룩스

거제 섬도
권은비
김현주 x 조광희
노뉴워크
다이애나랩
로자바 필름 코문
브레이크워터
(최영숙 x 태이)

스몰 바치 스튜디오
실험실 C
예페 하인
오버랩
우 말리 x 밤부 커튼 스튜디오
젤리장
코뮤니타스 구부약 코피

일시적 개입

일시적 개입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022년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교차적이고 생성적인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지리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기반의 커뮤니티들이 지닌 문화 및 역사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리고 특정 지역 및 커뮤니티 구성원이 아닌 다른 지역과의 트랜스 로컬, 새로운 관계가 형성하는 네트워크와 돌봄, 그 연대의 방식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경상도 지역의 선박 문화를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작업, 의정부 기지촌 마을 커뮤니티를 주목한 프로젝트, 가상의 여성주의 예술가 레지던시 구축, 제주도의 인권 문제 및 소수자를 위한 차별 없는 가게 네트워크, 부산 바다의 생태 환경에 대한 리서치 기반 프로젝트, 광주와 필리핀 지역 작가들의 트랜스 로컬 예술 작업, 인도네시아 솔록의 지역 문제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가치 확장 프로젝트, 행정구역의 지역이 아니라 개인의 기억 속 맛의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로컬리티 레시피, 독일의 전쟁경험자들의 치유와 연대 프로젝트 등 로컬과 커뮤니티 개입형 다양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총 14팀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이렇게 열네 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로컬리티를 다루는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현시점의 로컬리티를 다시 살펴본다.

전시에는 각 프로젝트의 과정이 담긴 아카이브 자료 및 활동의 결과물과 함께 프로젝트의 핵심적 예술 활동을 재현하여 선보인다. 나아가 전시 기간에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 및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며, 전시 연계 행사로 ‘트랜스 로컬리티와 문화 행동’을 주제로 한 학회를 현대미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전시 기간 중 각 프로젝트와 연계된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계들이 교차하고 형성하는 로컬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들, 또는 그것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아우르는 로컬리티에 관해 예술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가 관객들에게 물리적 장소를 넘어선 또 다른 장소와의 관계 맺기나 정서적 연대가 가능한 일시적인 공동체를 상상해 보고, 삶을 가치있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개입의 방식들을 고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거제 섬도

거제 섬도는 거제도를 기반으로 섬의 생태와 기반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20년 조선소 노동자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유휴 조선소 전시를 진행하였고, 2021년부터 한반도 동남권의 항만과 조선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 해양산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바다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해양지리지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거제 섬도

노뉴워크 ‘일시적 정치 공동체’

김수이 시각 예술가, 장례지도사 인간세계에서 통용되는 삶과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탐구하고 습득하며 접근한 후에 작업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한다. 글, 드로잉, 오브제 내에서 반짝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무질서를 일목요연하게 조화하는 것을 즐겨하며, 현재는 죽음 이후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으로 장례지도사가 되어 일하고 있다. 사망진단서 모음집인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를 펴냈고, 에세이 ‘아무도 죽음을 모르지만,」을 썼다.

볼로야 시각 예술가, 기획·매개자 사적 경험이 다른 역사와 사건으로 전개 및 발화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작업과 기획으로 풀어내고 있다. 우연적 해프닝 혹은 사건 현장의 단면처럼 표상되는 내러티브는 도시성, 여성, 일상성을 통과하며 드로잉, 텍스트, 미디어, 사진 아카이브 등 다양한 매체로 가시화된다.

성지는 미술사학자, 미술비평가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한다. 근현대 미술의 역사와 동시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몸과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 읽고 생각하고 쓴다. 학술, 비평 작업을 통해 여성과 퀴어를 좀 더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송진희 작가, 기획자, 반성폭력활동가 동시대적 변화와 개인의 삶 사이에 충돌하는 여러 이슈들 중, 연약하고 매끈하지 않은 것들을 기어코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젠더 폭력에 맞선 여성 운동 아카이브를 기획 및 제작하였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위한 행동강령 제작에 참여하였다.

알록 판화 작업자 두물머리에 살고 있고 이곳에서 마주친 장면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일에 마음이 동한다. 장면의 안팎과 동시에 관계하며 작업한다. 농사짓는 이웃들, 가깝고 먼 숲,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물가와 씨앗들 사이에서 자라고 있다.

최미향 공연예술창작자, 예술가 사이 활동가,엄마 지역·여성·예술을 탐구하며 전시 기획을 통해 여성의 서사를 발굴하고 존재성과 연대함을 찾고 있다. ‘소수’를 위한 ‘타자화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절제된 자유를 창작된 공간에서 유포하는 중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에 집중하며 유머를 통해 삶을 이어 나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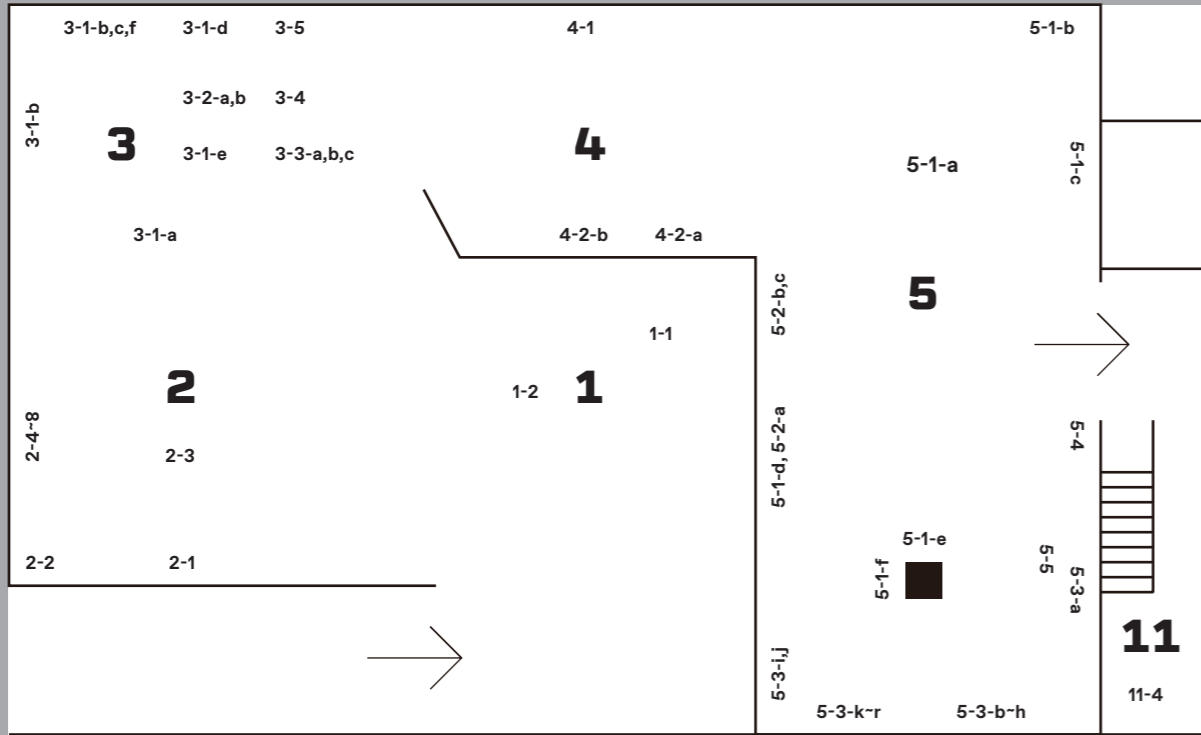
혜원 관람가, 시각 미술 생산자 밥벌이하며 때에 따라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탐구하고 있다. 퀴어 에코 페미니즘 관심이 조금 더 세상의 이미지를 평등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공부하고 있다.

▪ **다이나나랩**

다이나나랩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표현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룹이다.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 텍스타일, 사진, 영상 등 개인 작업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콜렉티브로 물리적인 공간부터 순간,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전체를 섬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 협력한 우에타 지로는 사진과 영상, 그래픽 디자인을 매개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거나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부분을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다. 도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현장이라 불리는 곳에 머무르며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영화 〈소음의 소음〉(나라국제영화제 장편경쟁, 2014) 및 리슨투더시티 〈옥바라지 골목〉(촬영, 연출, 국제실험영화제, 2016) 등이 있다. 또 다른 협력자인 biblbg는 소수이고 이상한 것들을 불특정한 이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안양파빌리온, 2014) 및 《인터넷 블랙마켓》(통의동 보안여관, 2016)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219-220

1층 제1전시실



1. 커뮤니티스 구부악 코피

1-1. 커뮤니티스 구부악 코피, <포스 론다 프로젝트>, 2022, 펜통간(공동 경보 시스템으로서 소리를 내는 대나무 튜브), 포스 론다 방 설치, 포스 론다 상징 트로피, 현장, 커뮤니티 사진, 피켓 일정, 피켓 목록, 달력, 회비 장부, 보안 장비, 손전등, 기도 도구 세트, 농기구, 구급상자, 시계, 도미노, 게임 카드, TV, 도미노 게임 테이블, 6×6m
- 공동작업 : RW 06 캄풍 자와

1-2. 커뮤니티스 구부악 코피 × 타우피쿠라만 키푸, <실라투라흐미(만남과 인사)>, 2021, 텍스타일 설치 5장, 1×2m

2. 거제 섬도

2-1. 거제 섬도, <파도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2022, 해도 (리서치 트립 + 세일링 포럼), 디지털출력

2-2. 거제 섬도, <파도 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전시 투어링>, 2022, VR, 165×93cm
- 협업 : 바인딩 binding

2-3. 거제 섬도, <파도 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전시 클럽 영상들>, 2022, QR CODE LINK, 가변크기
- 협업 : 바인딩binding

2-4. 거제 섬도, <파도 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브로슈어>, 2022, 종이에 인쇄, 59.4×42cm

2-5. 거제 섬도, <파도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세일링 포럼 발표자료 3종>, 2022, 종이에 인쇄, 21×29.7cm

2-6. 기계비평가 이영준, <우주로 향하는 지식의 항해_국가무역항 유류기 01, 02>, 2021. 종이에 인쇄, 29.7×21cm

2-7. 기계비평가 이영준, <세일링 포럼의 단상 3편>, 2022, 종이에 인쇄, 29.7×21cm

2-8. 기계비평가 이영준, <우리가 본 선박들의 구조절절 이야기들_통영편>, 2022, 종이에 인쇄, 29.7×21 cm

3. 실험실 C

3-1. 실험실 C, 델타 스페이스, 2022, 영상, 뷰마스터, 릴, 나무, 상자 외 혼합재료, 가변크기
- 영상 : 미디어리현동조합 / 디자인 : 김은영(황구도시) / 제작 지원 : 김덕희, 김민경, 김중원, 지능디자인 / 자료 지원 : 백소현, 이상정

a. 실험실 C, <Lab C 케이스>, 2022, 리서치 도구와 문서가 있는 설치, 가변크기

b. 실험실 C, <매듭 숲>, 2022, 실, 나무, 3000×1500×30mm(1개), 3000×1000×30mm(2개), 3000×500×30mm(2개), 3000×800×30mm(1개)

c. 실험실 C, <델타 개념도>, 2022, 실, 아크릴, 라이트박스 외 혼합재료, 800×1100×450mm

d. 실험실 C, <구술지도>, 2022, 천에 디지털 인쇄, 3000×2400mm

e. 실험실 C, <VM: 2019~2022>, 2022, 뷰마스터 2개, 필마운트 12개, 각 120x 120×80mm

f. 실험실 C, <메이킹 영상>, 2022, 싱글 채널 영상, 20분

3-2-a. 김덕희, <기억하는 바다>, 2022, 압석, 해수, 텍스트북, 가변크기 - 사운드 : 정만영

3-2-b. 김덕희, <바다의 아이들>, 2021, 퍼포먼스(퍼포머: 홍승이)

* 이 작품은 전시 기간 중 12월 3일과 4일 총 4회에 걸쳐 델타 스페이스 공간에서 퍼포먼스가 운영됩니다. 사전 신청자와 당일 관객은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a. 김진주, <구룡산 그리고>, 2019, 드로잉북, 200×150mm

3-3-b. 김진주, <수정산 그리고>, 2020, 드로잉 아코디언북, 200×150mm

3-3-c. 김진주, <절영 그리고>, 2021, 검은 종이에 은색 컬러 인쇄, 드로잉 아코디언북, 200×150mm

3-4. 정만영, <촉각적 소리>, 2020, 나무, 모터, 경석고 외 혼합재료, 900×900×820mm

3-5. 이재은, <서식지 #1, #2, #3, #4>, 2021, 2채널 영상, 각 1분 1초 / 1분 14초 / 3분 / 1분 48초

4. 오버랩

4-1. 오버랩, <더 사이클스(순환, 주기) : 사이클 001-006 아카이브>, 2022

4-2. 오버랩, <사이클 007>

4-2-a. 김도경 × 서지수 × 준준 몬텔리바노 × 조쉬 세라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2022, 영상, 5분 25초

4-2-b. 준준 몬텔리바노 × 조쉬 세라핀 × 김도경 × 서지수, <팡루가야원(오디세이/긴 여정)>, 2022, 영상, 2분 48초

5. 노뉴워크

5-1. 노뉴워크,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안전망>

a. 이충열, 자청,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안전망>, 2022, 패브릭 위 프린트, 철 프레임, 240×240×250cm

b. 볼로야, <눈을 취약한 눈>, 2022,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14분 30초 -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커미션

c. 송진희, 이충열, 자청, 최미향,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안전망 워크숍>,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5분

d. 자청, <a nor b(remastered)>, 2022, 가족이 쓰던 쿠션솜, 3년전 작업에서 배킨 글과 그림, 50×50cm

e. 이충열, <잠망경>, 2018-2021, 혼합재료, 23×162×40cm

f. 이충열, <산책>, 2022, 단채널 비디오, 12분 34초

5-2. 노뉴워크,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못>

a. 김수이, 볼로야, 해원,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못>, 2022, 책, 14.8×21cm

b. 김수이, 볼로야, 해원,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못>, 2022, 버섯 테라리움, 22×45×34cm

c. 김수이, 볼로야, 해원,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못>, 2022,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21분

5-3. 노뉴워크,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입주 작가>

a. 성지은, <일시적 거주 일지>, 2022, 공책에 연필, 9×14cm

b. 이미선, <#한쪽하루, 2022.07.18.>, 2022, 주위 온 나무판, 공방이 방지 페인트, 아크릴 물감, 52.6×74.6cm

c. 이미선, <에너지 로드>, 2014, 만화책, 15×21cm, 44쪽

d. 이미선, <좋아하는 남의 개들>, 2020, 포스터 이면지, 연필, 15.4×22.2cm, 10쪽 -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강정평화상단,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커미션

e. 이미선, <그댄 그랬지>, 2020, 포스터 이면지, 연필, 15.5×22.2cm, 12쪽 - 《우리집에 놀러와-당신도 쯤쯤되었습니다》, 그린 군소 반디 커미션

f. 이미선, <나, 계급>, 2020, 포스터 이면지, 연필, 15.7×22.8cm, 20쪽 - 《나는 너》, 전태일 50주기 대전태일문화제 커미션

g. 이미선, <#한쪽하루>, 2021-2022, 포토폴리오 북에 드로잉 원본, 2권

h. 이미선, <3022년의 어느 바닷가 마을>, 2027, 포스터 이면지, 연필, 15.5×23cm, 80쪽

i. 알록, <눈을 이루는 풍경 1>, 2022, 장지 위 잉크, 47×60cm

j. 알록, <눈을 이루는 풍경 2>, 2022, 장지 위 잉크, 47×60cm

k. 알록, <차별금지법 제정>, 2022, 종이 위 잉크, 21×30cm

l. 알록, <도시의 유산>, 2021, 한지 위 잉크, 35×46cm

m. 알록, <겨울 눈 쌓매>, 2022, MDF 위 잉크, 22×28cm

n. 알록, <씨앗 모종상>, 2021, MDF 위 잉크, 22×28cm

o. 알록, <월동 쪽파 캐기>, 2022, MDF 위 잉크, 28×22cm

p. 알록, <쓰러진 버 묶기>, 2022, MDF 위 잉크, 28×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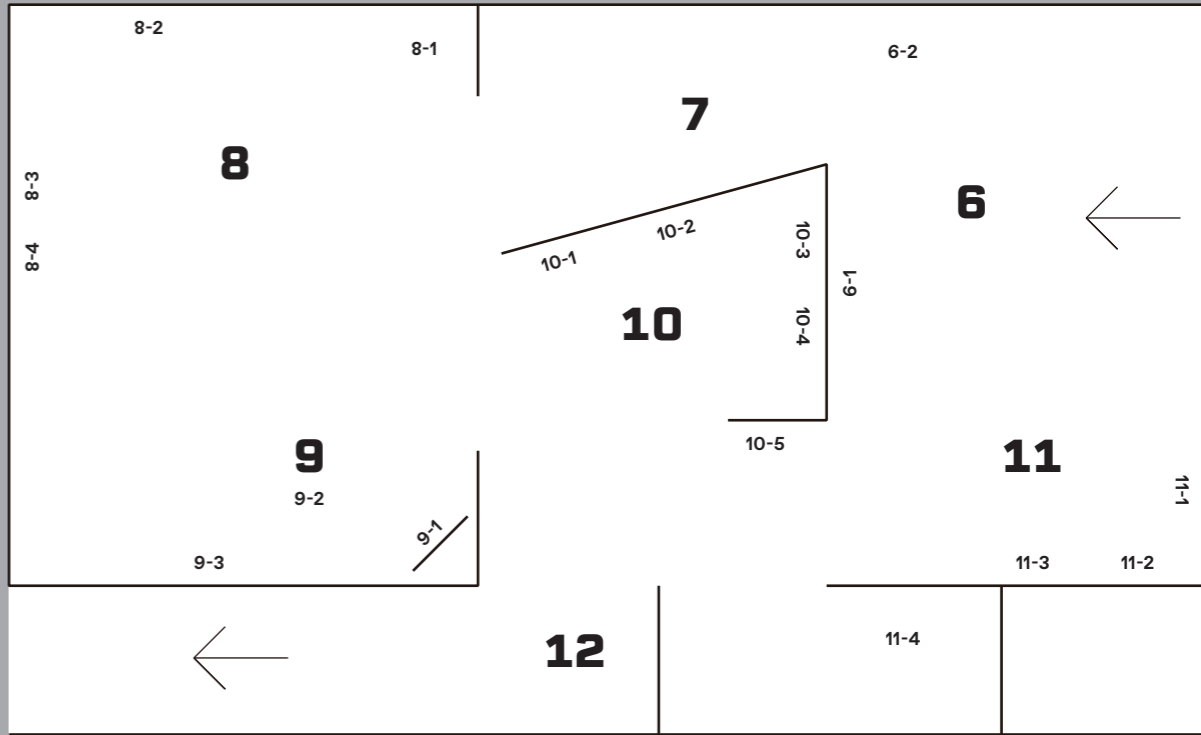
q. 알록, <방울토마토와 연장들>, 2022, MDF 위 잉크, 28×22cm

r. 알록, <완두 갈무리>, 2022, MDF 위 잉크, 28×22cm

5-4. 노뉴워크,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2022, 웹 아카이브

5-5. 볼로야, <관계구 지도>, 2022, 벽 위 먹지 드로잉, 가변설치

2층 제2전시실



6. 다이애나랩

6-1. 다이애나랩 × 우에타 지로, <우리는 이미 펜스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2022,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2시간 39분 40초

6-2. 다이애나랩 × bibibg, <지도에 없는 이름>, 2022, 점자 스티커, 가변크기

7.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7.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환경으로서의 예술 : 자두나무 개울에서의 문화 행동>, 2013, @타이페이 현대미술관

8. 로자바 필름 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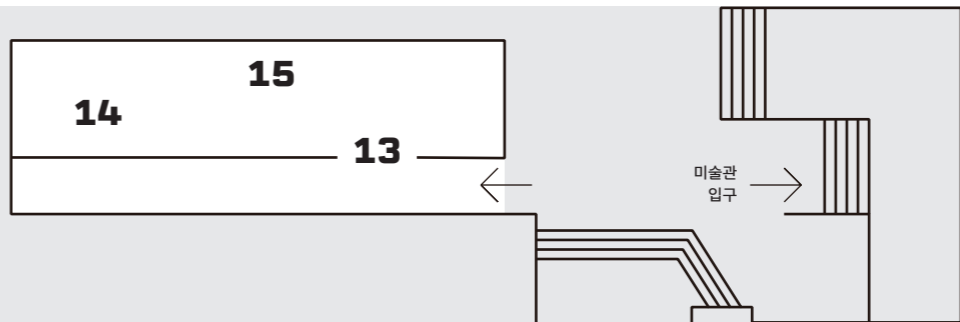
8-1. 로자바 필름 코문, <로자바 필름 코문 프로젝트 영상>, 2021, 영상, 13분

8-2. 로자바 필름 코문, <외로운 나무들>, 2017, HD영상, 43분

8-3. 로자바 필름 코문, <로자바 국제 영화제 포스터>, 2019-2020

8-4. 로자바 필름 코문, <'로자바를 구하라' 포스터>, 2022

스페이스필룩스



5-4. 노뉴워크,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2022, 웹 아카이브

5-5. 볼로야, <관계구 지도>, 2022, 벽 위 먹지 드로잉, 가변설치

9. 브레이크워터(최영숙 × 태이)

9-1. 브레이크워터(최영숙 × 태이), <켜켜이 꽃>, 2021, 디지털 프린트와 자수가 혼합된 태피스트리와 민들레 술병이 문헌 홀더미, 태피스트리 4×3m, 홀더미 5m

9-2. 브레이크워터(최영숙 × 태이), <셋노랑고 복실복실한 자장가>, 2021,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녹음본, 약 15분 - 한국어 번안 : 한윤아

9-3. 브레이크워터(최영숙 × 태이), <술이 되어간다>, 2020-2022, 프로젝트 기록사진 슬라이드

10. 권은비

10-1. 권은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Angst Essen Seele Auf)>, 2022, 단채널 영상, 15분 - 독일 동독지역 베르나우 지역주민 참여

10-2. 권은비, <빨래프로젝트 2>, 2022, 단채널 영상, 7분 - 구소련 독립국가 이주민 참여

10-3. 권은비, <붉은 비누1>, 2015, 글리세린, 붉은색소, 오일, 향료, 종이, 가변크기 - 독일 동독지역 베르나우 지역주민 참여

10-4. 권은비, <붉은 비누2>, 2022, 글리세린, 붉은색소, 오일, 향료, 종이, 가변크기 - 구소련 독립국가 이주민 참여

10-5. 권은비, <불안>, 2015, 잉크젯 프린트, 594×841mm

11. 김현주 × 조광희

11-1. 김현주 × 조광희, <뻬벌 아카이브>, 2022, 멀티미디어 설치, 가변크기, 사진, 주민이 1990-2010년 사이 VHS 비디오로 기록한 마을 영상, 주민이 쓴 글, 낙서, 지폐, 편지 등 수집된 사물들

11-2. 김현주 × 조광희, <뻬벌 - 시공을 몽타쥬하다>, 2022, 2채널 영상설치, 가변크기, 22분 2초

11-3. 김현주 × 조광희, <뻬 뻬 뻬 뻬>, 2022, 2채널 영상설치, 가변크기, 여섯 분야의 인터뷰

11-4. 김현주 × 조광희, <남독의 방 -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2022, 멀티미디어 설치, 관객참여 퍼포먼스, 가변크기, 지역민의 구술이 담긴 낭독책 10권, 오디오, 마이크, 스피커, 보편대

12. 리딩룸

12-1. 김동일, 「사회적 행위로서의 예술을 위한 개념과 조건들」

12-2. 민운기, 「도시 상품화 논리와 욕망을 넘어서는 대안 지역 생태 공동체를 꿈꾸며」

12-3. 심소미, 「길들의 지도는 계속된다 : 광역에서 로컬로의 전환」

12-4. 유혜숙, 「액션과 인터액션」

12-5. 조희정, 「빛의 사람, 로컬 관계구」,

12-6. 채은영, 「일시적 현재에서 오랜 미래를 향한 표류(들)」,

13. 젤리장 × 핑크앤메이크

13. 젤리장 × 핑크앤메이크, <랜덤 이웃>, 2022, 캠페인, 가변설치

14. 스몰 바치 스튜디오

14. 스몰 바치 스튜디오,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 2022, 혼합매체

15. 에페 하인

15. 에페하인, <나와 함께 숨을>, 2022, 흰색 종이 / 캔버스 / 벽에 파란색 페인트, 가변크기

*에페 하인의 작업은 12.24(토)에 관객 참여 퍼포먼스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후 퍼포먼스 결과가 전시 종료시까지 전시됩니다. 관람에 참고해주세요.

- 로자바 필름 코문**

로자바 필름 코문은 영화감독으로 구성된 풀뿌리 콜렉티브로 작업 방식은 로자바(시리아 동북부 자치정부부)의 국가 없는 민주주의 결성이라는 더 커다란 정치적 프로젝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로자바 필름 코문의 영화들은 영화제작에 있어 직접 임하며 배우는 과정의 일부이자 그들의 투쟁과 복원에 대한 기록이다.

로자바 필름 코문의 로자바(시리아 동북부 자치정부부)의 국가 없는 민주주의 결성이라는 더 커다란 정치적 프로젝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브레이크워터[최영숙*태이]** 브레이크워터는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 디아스포라 작가 듀오 태이와 최영숙의 콜렉티브로 2019년에 결성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며 동아시아 이주민들의 위태로운 삶과 상처들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을 선보인다. 기후변화와 탈식민주의, 노동의 문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풍경의 정치성, 영적인 지식, 다양한 종 간의 우정과 치유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1년 리버풀 비엔날레 공공 프로그램에서 ‘탈식민 보타니 워킹 그룹’을 공동 창립하고 2022년 《카셀 도큐멘타15》에서 〈거절의 오아시스〉 퍼포먼스 작업을 함께 선보였다.

- 스몰 바치 스튜디오** 스몰 바치 스튜디오는 식경험 디자이너 강은경이 운영한다. 협업과 리서치를 기반으로, 음식을 매개로 발생하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현상들에 관심을 두는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1제곱미터의 우주》(실협실C, 2022), 《돌고 돌고 돌고》(팩토리2, 2021-22) 등 다수의 단체전과 《T for 2》(우란문화재단, 2021) 등의 프로젝트에서 연구 및 기획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피칸트는 송민선과 최중원이 운영하는 서울 기반 디자인스튜디오로, 포스터와 책, 브랜딩,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매콤하고 톡 쏘는 향신료의 맛을 표현하는 독일어 형용사 ‘pikant’처럼, 디자인스튜디오 피칸트는 생태와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멋과 흥미를 더하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 실협실 C** 실협실 C는 숲 큐레이터 박미라와 아트 디렉터 창파의 협업으로 ‘식물’, ‘지역’, ‘예술’을 주요 키워드 삼아 활동하고 있다. 부산의 산과 바다의 한 조각을 오랜 시간 공들여 바라보고 장소에서의 경험을 기획한다. 수정산 일대에서의 《소요의 시간》(2019, 2020), 영도에서의 《부유의 시간》(2021), 다대포에서의 《1제곱미터의 우주》(2022)까지 경험을 기획하는 큐레토리얼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

정만영 사운드 설치미술가로 활동하면서 장소와 소리의 공통 지점들을 연구하는 지역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운드 스케이프 CD 시리즈는 ‘미안마’, ‘실상사’, ‘부산 원도심’, ‘부산 중앙동 인쇄 골목’, ‘부산 초량 산복도료’의 5편이 있고 ‘실상사 사운드 스케이프-소리바’는 정식 발매하고 있다.

김덕희 설치 미술가로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 자연, 생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고 탐구한다.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경의와 경외를 이끌어 내는 근원적 힘에 관심이 있다. 그러한 힘을 사유하는 매개로서 열, 중력, 빛과 같은 자연의 비물질적 요소를 사용하여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무쌍한 찰나의 순간들을 형상화한다.

김진주 사물 본질의 근원에 대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펜 드로잉으로 그려왔다. 자신과 그의 외연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상황, 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간다. 어떤 것이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의 정당한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스스로를 표현한다. 1994년부터 구축화가로 활동해왔고 개인사를 주제로 페인팅, 펜 드로잉, 일러스트, 한국화 등 여러 기법을 시도하며 그리는 속도와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이다.

- 에페 하인** 에페 하인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덴마크 아티스트이다.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왕립 미술학교와 프랑크 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고등 예술학교에서 수학했다. 에페 하인은 미술과 건축, 그리고 기술적 창작물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경험적이고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해왔다. 독특한 형식적 단순성과 종종 유머러스한 특징을 보이는 그의 작업은 1970년대의 미니멀리스트 조각 및 개념 미술과 접점을 지닌다. 그리고 관객을 이벤트의 중심에 두고 주변 공간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지각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들을 선보인다.

- 오버랩** 오버랩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큐레이터 그룹으로, 독립기획자와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와 협업을 통한 창-제작과 지역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2015년에 결성된 오버랩은 김선영, 박유영 큐레이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광주 월산동에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거점으로 한 예비 독립 기획자/연구자 프로그램 ‘ICC(Independent Curator Collaboration)’와 창작자들에게 협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 ‘ACX(Artist Collaboration eXchange)’를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월산부르스; 전복된 도시》(월산동 일대, 2020), 《공감본능》(ACC 복합6관, 2021), 《도시직조》(weavinglab.creato rlink.net, 2022) 등 지역성과 역사성을 품고 있는 도시의 공간/주제의 협업형 전시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도경 반복되는 일상을 기록하고 수집하여 이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 조소를 전공하고 공주를 거점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조각뿐 아니라 드로잉,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일상 사물을 관찰하는 과정과 시간을 다양한 시선에서 섬세하게 그려낸다. 2013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참여자가, 2017 ACC 창작제작센터 펍 방문창작자로 활동하였다. 2014년에는 ‘몽골노마드레지던시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서울과 런던, 광주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서지수 광주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온라인 가상공간의 발달로 생긴 수많은 디지털 이미지들이 어떻게 현대사회의 인간과 삶에 개입하는지에 대해 시각화한다. 주로 가상공간의 특성을 물리적으로 반영하고자 투명한 PVC소재를 작업에 활용하며, 미디어, 프린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2020 ACC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여했고, LA, 서울, 광주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최근 김포 시카미술관에서 개인전 《디지털PTSD는 현실입니다》를 개최하였다.

조쉬 세라핀 필리핀 출생으로 현재

브뤼셀과 마닐라를 오가며 활동 중인

작가는 댄스, 퍼포먼스, 시각예술, 안무를

결합한 다분야 예술가이다. 그의 작업은

정체성, 이주, 퀴어 정치와 재현, 존재의

상태 및 육체의 거주 방식에 대한 질문을

다루며, ‘공허감’이라고 불리는 자신이

만든 대체 정체성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

형태와 그 표현 사이의 이중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의 퍼포먼스 작품은 벨기에

겐트 국제 페스티벌, 타이페이 공연 예술

센터, 필리핀 비바엑스콘 등에 초청받았다.

- 우 말리*밤부 커튼 스튜디오**

우 말리는 대만의 큐레이티이자 설치 작가이며 사회 참여적 개념 미술가이다. 그리고 사회와 환경, 그리고 생태 문제를 다루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한편, 밤부 커튼 스튜디오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예술 공간 중 하나로, 전 세계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 대만 최초의 공식 기관이다.

- 젤리장*핑크앤메이크** 젤리장*핑크앤메이크는 공공캠페인 활동 팀이다.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역의 시민과 함께 주도적 실천 방식으로 고민한다. 공공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절한 그릇(미디어)에 담아내는 운동을 전개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마을에서 버스정류장 줄서기 ‘팔호 라인 캠페인’, 공원소음 질서 권유 ‘I want to fall asleep 캠페인’ 등 시민 대상 캠페인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다. 현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캠페인 방법을 제공하고 독려하는 ‘시민 리빙랩 프로그램’을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제주생활공론’, 충남사회혁신센터 ‘보통의 혁신가’ 등에서 전개하고 있다.

-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¹** 예술 및 미디어 지식 개발 연구소 ‘구부악 코피 커뮤니티(Gubuak Kopi Community)’로 더 잘 알려진 구부악 코피는 인도네시아 솔룩에 기반을 둔 비영리 문화 단체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이 그룹은 서부 수마트라의 지역 도시인 솔룩에서 예술과 미디어 지식 연구 및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부악 코피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미디어 지식을 생산 및 보급하고, 지역 환경과 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예술가, 작가, 연구원)와 주민 간의 협업을 조직하며, 대체 미디어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고,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공간을 구축했다. 구부악 코피 커뮤니티는 2017년부터 서부 수마트라 전반, 특히 솔룩 지역의 농업 공동체에서 발전한 문화를 연구하는 ‘다우리 수부르’(Daur Subur)’ 플랫폼을 큰 주제로 삼고 출발했다. ‘다우리 수부르’는 농업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적 사건들로부터 얻은 지식과 그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들을 제시하여 오늘날의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알버트 라흐만 푸트라, 비아랄 바드리, 비키 와비함디카, 하피잔, 무함마드 리스키, 불타 아마드 조네바, 제칼버 무하람

- 필진** 김동일은 예술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개념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부르디외를 중심으로 하우저, 단토, 라투르 등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평적 글쓰기를 수행 중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며,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장이다.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한국사회학회 논문상(2009), 월간미술대상 학술평론 부문(2011)을 수상했다. 『상징투쟁의 사회학』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 민운기** 예술의 사회적, 지역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2002년 개관한 대안문화공간 스페이스 빔을 꾸려가며 각종 전시 및 비평지 발간, 공공예술프로젝트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모색해 왔다. 현재 인천 동구 배다리마을을 거점으로 ‘열린 도시공동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문화예술단체 및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술 활동을 제도화된 영역에서보다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풀어내는 가운데 다양한 활동 방식과 언어를 찾아내고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 심소미** 심소미는 서울과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큐레이터로, 도시공간과 예술 실천의 관계를 큐레토리얼 담론으로 재생산해오고 있다. 주요 기획으로 《미래가 그림나요?》, 《리얼-리얼시티》, 《2018 공공하는 예술: 환상벨트》 등이 있으며, 『큐레이팅 팬데믹』 및 『주변으로의 표류: 포스트 팬데믹 도시의 공공성 전환』을 발간했다. 문화연구지 계간 『문화/과학』의 편집위원이며, 콜렉티브 ‘리트레이싱 뷰로’로도 활동한다.

- 옹해숙** 옹해숙은 홍익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아시아 문화연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4년부터 홍천 지역문화 공간 ‘분홍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홍천에서 거주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연구 및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 조희정** 조희정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서, 6년째 로컬을 돌아다니며 연구하는 정치학 박사이다. 주로 새로운 가치와 방식을 지향하는 로컬 창업자에 관심이 있지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업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로컬과 청년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더가능연구소의 연구실장도 겸임하고 있다.

- 채은영** 도시 공간에서 자본과 제도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진 시각예술의 상상과 실천에 관심 많은 인터-로컬 큐레이터로, 트랜스-로컬리티와 생태-정치를 주제로 리서치 기반 큐레토리얼을 지향하는 ‘임시공간’과 인터-로컬 웹진 ‘동무비평 삼사’를 운영하고 있다.

연계 행사

- **아르코미술관 × 현대미술학회 공동 심포지엄 ‘움직이는 경계들’**
: 2022.11.19.(토) 13:00,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참여자: 정현주(서울대학교), 문재원(부산대학교), 박소영(영남대학교), 홍성태.정종은(상지대학교), 김동일(대구가톨릭대학교), 용해숙(‘분홍공장’ 운영자, 작가), 김현주&조광희(전시 참여작가)/ 모더레이터: 조선령(부산대학교))
- **코뮤니타스 구부악 코피 ‘포스 론다’ 연계 퍼포먼스**
: 2022.11.18.(금) 15:00, 아르코미술관 제1전시실
- **코뮤니타스 구부악 코피 ‘포스 론다’ 연계 게임 워크숍**
: 2022.11.20.(일) 14:00, 아르코미술관 제1전시실
- **실험실 C ‘델타 스페이스 × 김덕희 작가 <바다의 아이들> 연계 퍼포먼스**
: 2022.12.3.(토), 12.4.(일) 14:00, 16:00, 아르코미술관 제1전시실
- **다이애나랩 ‘지도에 없는 이름’ 연계 퍼포먼스**
: 2023.1.6.(금) 14:00-16:00, 아르코미술관 제2전시실
- **예페 하인 ‘Breathe with Me’ 글로벌 액츠 프로젝트**
: 2022.12.24.(토), 스페이스필룩스
- **스몰 바치 스튜디오 ‘로컬리티 레시피 워크숍’**
: 2023.1.7.(토) 12:00, 13:00, 14:00, 15:00 (4회차), 스페이스필룩스

*자세한 일정 및 참여자 모집 방법은 행사 일주일 전 홈페이지 및 SNS를 확인해주세요.

전시 개요

- 전시기간 : 2022.11.18.(금) - 2023.1.21.(토)
- 참여 : 거제 섬도, 권은비, 김현주 × 조광희, 노뉴워크, 다이애나랩, 로자바 필름 코문, 브레이크워터(최영숙 × 태이), 스몰 바치 스튜디오, 실험실 C, 예페 하인, 오버랩,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젤리장, 코뮤니타스 구부악 코피
- 장소 :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실, 스페이스필룩스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 작품 상세설명 : 온라인 오디오 가이드



아르코미술관

03087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02-760-4850

www.arko.or.kr/artcenter

인스타그램 @arko_art_center
트위터, 페이스북 @arkoartcenter
유튜브 ARKO Art Center

관람 시간

오전11시 - 오후7시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당일 휴무

관람료

무료